

# Art



아트인컬처  
April 2015

Special Feature /  
아시아, 글로벌 마켓의 리더  
핫플레이스 홍콩을 가다  
스타작가 가격 분석

Artist /  
윤석남,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Theme Special /  
패션, 미술관으로 입성하다

Critic /  
김종영 탄생 100주년 특별전

Abroad /  
뉴뮤지엄트리엔날레

## 비디오의 사제

빌 비올라展 3. 5~5. 3 국제갤러리

빌 비올라의 세계는 견고하다. 이 견고함이란 인간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조건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나타난다. 전시장 초입의 <내적 통로(Inner Passage)>를 보자. 먼 곳으로부터 등장한 화면의 인물은 정면을 향해 느린 속도로 다가온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믿음이나 바람이 내게 가호를 선사하기 위해 도착한 것처럼 그는 서서히 내 앞으로 다가온다. 고요함과 극적 긴장이라는 모순적 감정이 공존하는 순간이다. 산업사회로의 전환 이후, 세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오늘날 속도는 최고의 가치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 된다. 비올라가 그린 세계 역시 속도에 의해 구체화되지만 여기서의 속도는 바람의 강렬함이 아닌 느림에 의한 울림으로 비롯된다. 바람의 세계가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들이 혼합된 과잉의 장이라면, 느림의 세계는 전자에 의해 가려지거나 지워진 인간 활동의 원초적 움직임을 포착한다. 원초적 움직임이란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걷고 상대방과 교감하는,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는 존재의 시작이다. 아이가 태어나 몸을 움직이고 눈을 뜨고 먹을 것을 찾는 행위만으로 우리는 감동받는다.

반신불구가 된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 길을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걷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몸부림이다. 느리고 비정형적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삶의 의지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생명의 움직임이다. 비올라는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인생의 궤적을 재현한다. 비올라가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은 특정 학파나 동서양의 구분을 포월한다. 작가의 이런 범종교적인 태도는 시각적 스펙터클이나 사회정치학적 비평주의가 아닌, 삶과 죽음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죽음으로써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 모리스 블랑쇼가 연상된다. 죽음의 공동체는 비판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수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비올라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인류의 집단적 환상주의로부터 벗어나 삶의 진리를 발견하라고 호소하는 듯하다. 그의 초기작 <반영하는 수영장(The Reflecting Pool)>(1979)에서 수영장 끝에서 도약한 비올라가 마치 공중 부양을 하듯 정지 상태로 남아 있지만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과 숲이 살아 숨 쉬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인간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자연의 시간은 수치화된 시간 개념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 되감긴 시간, 시작과 끝의 조우

<도치된 탄생(Inverted Birth)>은 시간을 반대로 흐르게 한 비디오 작업이다. 한 남성 머리 위로 물이 상승한다. 어두운 색부터 점차 밝은 색으로 바뀌는 과정을 느린 속도로 보여 주고, 마치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웅장한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물이 쏟아지는 원래 방향은 공기로 시작해 우유, 피 그리고 흙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단순화한 작업이다. 이 순서를 되감자 어두운 흙으로 시작해 피와 우유의 세례를 받은 후 투명한 물에서 공기 입자가 마치 탄생의 환희를 축하하듯 공간을 빛낸다. 거대한 화면 속에서 묵묵히 물의 세례를 받는 인물의 모습은 마치 조각작품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씻김의 과정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생명이 아닌 내적 생명의 갱신을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을 되감자 일원적인 삶의 궤적이 삶의 순환으로 바뀐다. 유한한 생이란 운명을 거역할 수 없지만 자발적 의지와 자각은 내적 존재의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물의 순교자(Water Martyr)>는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의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인 물, 불, 흙, 공기의 순교자 연작의 일부이다. 비올라는 종교 공간은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는 교화의 장이라 말한다. 그리고 예술은 그 무엇보다 차이를 극복한 만남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왼쪽 · <Inverted Birth> 비디오, 사운드 설치 8분 22초 2014  
오른쪽 · <Water Martyr> 비디오, 사운드 설치 7분 10초 2014\_이번 전시는 빌 비올라가 2003년, 2008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갖는 세 번째 개인전이다. 최근 2년간 작업한 7개의 영상작품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Night Vigil〉 비디오, 사운드 설치 18분 6초 2005/2009\_ 바그너의 19세기 오페라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새로 제작한 오페라에서 파생했다. 남성과 여성,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2개의 스크린에서 영사되는 2부작 비디오 설치작품이다.

기제라고 강조한다. 비올라에게 고전은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기도 하다. 순교자 연작은 마사치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426)를 연상시킨다.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부활의 계시가 된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이처럼 매듭지어져 있다는 믿음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개의 문명은 죽음을 신성한 통과의례로 보고 제의를 통해 영혼의 영속성을 기린다. 범종교적인 작가의 세계관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과 영적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디오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매체가 될 수 있을까?

비올라는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는 이유를 어떤 결정적인 만남의 기대에서 찾는다. 대개 사람들은 일상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는 적지만 적어도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는 행위는 이미지와 작품에서 자각이라는 섬광이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매체는 물질로 구성된 세계를 비물질적인 세계로 재현한다. 그리고 비디오는 빛으로 빛어지는 매체이기도 하다. 섬광의 존재는 현실을 비물질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에너지이다. 비디오는 이미지와 소리를 기록하는 매체지만, 이러한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요소를 지배하는 성질이 바로 시간이다. 고대부터 인류는 빛과 시간에 매료되었다. 희망과 믿음의 상징으로서의 빛과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올라에게 비디오는 이 두 기제에 의해 생성되는 기술이자 계시의 매체이다.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밝게 빛나는 화면 바깥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믿음은 비디오의 바탕이 된다.

한 예로 십여 년 전 전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비올라는 1980년대 일본에 머물 당시 우연히 시청한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찾고자 하는 가족의 설명이 적힌 종이를 든 채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할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카메라 너머, 미디어 이미지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으리라는 믿음의 순간이었다. 그의 수많은 작업 속에 등장하는, 앞을 향해 걸어오는 인물들은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이 공존하는 존재의 몸짓이다. 〈조우(The Encounter)〉는 두 세대의 여인들의 만남에 관한 작업이다. 두 여인이 먼 곳으로부터 평행하게 걸어온다. 화면 앞까지 다가온 후 나이 든 여인이 젊은 여인에게 내용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건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길로 되돌아간다. 밀란 쿤데라는 우연히 조우한 시선의 교차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미학적 순간이라 말했다. 짧은 순간의 만남은 곧 섬광이 발생하는 순간이고, 결국 인생의

길은 이러한 만남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 비디오의 '순간'

〈가녀린 실(Delicate Thread)〉 역시 만남과 이별에 관한 작업이다. 아른거리는 후경의 신비로움을 뚫고 두 명의 사람이 앞으로 다가온다. 환영과 같은 신기루를 뚫고 온 두 남녀는 현실을 자각한 후 자신의 길로 떠난다. 화면 속 남자가 황량한 대자연의 끝자락에서 천천히 전진한다. 그가 걷고 있는 이유를 알아차릴 수는 없으나 그저 앞으로 걷는 행위만으로도 시선을 채운다. 또 다른 작업 〈내적 통로〉는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제시한다. 먼 곳에서 있는 남자의 모습은 흡사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비올라의 비디오 작업이 지닌 미학적 힘은 화면 속 연기자의 행위나 서사가 아니라 이미지가 된 연기자들의 행위와 물과 불 그리고 기체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개어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생생한 움직임의 궤적을 제시하는 데 있다. 어떠한 인공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체와 그 움직임 그리고 자연의 파생물만으로 인간과 자연의 원초적 만남을 제시한 리처드 롱에게 헌정한 작업이다. 리처드 롱의 작업은 자연이라는 질료와 몸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자연 속으로 다시 소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리처드 롱은 자연 속에 기하학적인 형태를 기입했는데, 그리지 않고 몸의 움직임만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서서히 작가의 움직임을 받아들인 자연은 대지 위에 만들어진 신비한 형태로 화답한다. 이후 다시 자신의 길로 떠난 리처드 롱의 삶과 예술은 비올라의 예술세계와 유사하다.

비올라의 범종교적 태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비정치적인 태도 속에 서로의 이기심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채워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그의 비디오는 표면에서 내면이 드러나는 미시적 움직임을 통한 진실의 순간을 보여 주는 도구이고 삶과 예술을 결합하는 매듭이 된다. 독일의 현대미학자 크리스토프 멘케(Christoph Menke)에 따르면 “예술가는 다른 활동의 모델이다. 즉 목적에 이끌리는 행위와는 다른 모델이다. (...) 여기에서 예술가들로부터 배우라는 말은 실천 세계의 참여에서 벗어나 미학적 관조 속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 모델에 정향하는 것은 ‘미학적 현상들’을 통해서 실천적인 일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세계를 미학적으로 변용시키는 것을 뜻한다.”(《미학적 힘》, 149~150쪽)

/ 정현